

무형유산 전문가 제주 잠녀를 만나다

국립민속관 발행 국제저널 「무형유산」 편집위원 등 8~9일 제주 역사 탐방

등록 : 2010년 02월 08일 (철) 19:50:12
최종수정 : 2010년 02월 08일 (철) 19:50:12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국립민속관 발행 국제저널 「무형유산」 편집위원 등 8~9일 제주 역사 탐방
'보호해야 할 독창적 여성 문화' 관심...지역사회 중심 가치 인정 작업 당부



▲ <무형유산>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탐방단이 칠머리영등굿 시연을 보고 있다.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 '잠녀'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립민속관이 간행하는 국제저널 「무형유산」 국제편집자문위원과 편집위원 등 국내·외 박물관 및 무형유산 관련 학자 25명이 8~9일 제주를 찾았다.



▲ <무형유산>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탐방단들이 해녀 노래 공연을 보고 있다.

앨리산드라 커밍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회장을 비롯 일본 코이치 이가라시 ICOM일본위원회 부위원장·장바이 중국 박물관학회 이사장 배기동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전책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임돈희 중앙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 위원장 등의 이번 제주 방문은 지난 6~7일 자문회의에 이은 역사탐방의 일환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잠녀문화를 실제 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는 특히 내년호 「무형유산」에 제주 잠녀를 주제로 한 특집 논문을 게재할 예정의 아마레스워 갈라 호주 퀸즐랜드대학 교수(제3기 편집위원장·유산경영학 전공)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 민중놀이

해녀박물관을 둘러본 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칠머리당 영등굿과 해녀 노래 공연, 성산포 해녀 물질 공연 등을 관람한 탐방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성' 중심의 무형문화유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잠녀의 역사와 생활양식은 물론 해외까지 이어진 바깥물질에 대한 질문도 아끼지 않았다.



▲ 우뚝개 잠녀 물질 공연 뒤

아말레스워 교수는 “지난 2008년 한국인류문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제주 잠녀를 처음 알게 됐고, 지난해 칠머리당영등굿 대표목록 등재 선정 때 잠녀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직접 그녀들의 삶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제주는 세계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다 가치있는 무형유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코스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도 “잠녀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기록해 자료화하고 지속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하는 방안을 진행해야 한다”며 “잠녀 문화를 어떻게 잘 보여주고 또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방문단은 9일 허벅 제작공방인 제주도 예원과 가마오름 평화박물관을 둘러본 뒤 이도한다.